

봄내음 가득한 '함평'... 나비 따라 떠나는 12일간의 축제

오늘부터 엑스포공원 일원...20만마리 나비 장관 체험·공연·먹거리 집결... '나빛파크' 개장식 눈길

꽃과 나비, 황금박쥐가 반겨주는 '함평 나비대축제'가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소식을 관광객들에게 전한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표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함평나비대축제는 올해 '뽀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을 주제로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과 함평천 생태습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함평군 캐릭터 '뽀꾸'와 '황박이'를 앞세워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 대표 나비로 선정된 '긴꼬리제비나비'는 길게 뻗은 꼬리와 우아한 비행으

로 미래를 향한 도약과 희망을 상징한다. 축제장에서는 호랑나비, 배추흰나비 등 17종 약 20만마리의 나비가 날아다니는 장관이 펼쳐진다.

여기에 메리골드, 꽃안두롱 등 30여종 50만분의 봄꽃이 더해져 관람객들에게 한 폭의 자연 풍경을 선사한다.

개막 첫날에는 나비날리기 행사와 함께 가족 체험공간 '나빛파크' 개장식이 열리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개막식에서는 퍼레이드와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공연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전국 경연대회 입상자 콘서트와 뮤지컬 페스티벌, 어린이날 특별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체험 프로그램 역시 축제의 핵심이다. 나비 먹이주기 체험과 함께 신규 프로그램인 '나비와 함께 춤을' 체험이 운영되며, 나비 날리기 행사는 하루 5회 이상 진행된다.

또 전통놀이, 나비 의상 체험, 키링 만들기, 김밥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생태 체험 공간에서는 나비의 성장 과정과 생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장수풍뎠이 등 다양한 곤충도 함께 관찰할 수 있다.

회귀 곤충 표본 전시와 VR 체험도 마련돼 교육적 요소를 더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나빛파크'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놀이공간으로 구상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총 8개 존, 25개 체험 시설로 운영되며 현장 접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970~80년대 생활상을 재현한 '추억공작소'와 황금박쥐 조형물 등 이색 콘텐츠도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관광객 편의도 대폭 강화됐다.

축제 기간 동안 KTX가 함평역에 정차하고, 역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열차 이용객에게는 입장권 할인과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함평군 관계자는 "올해 축제는 살아있는 나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가족 중심 콘텐츠를 확대했다"며 "봄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담양군은 최근 송강정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1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담양군청

아이들이 행복한 담양 건설... '아동친화도시' 조성 속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민·관 협력 체계 구축

담양군이 아동친화도시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4개년 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을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송강정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1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

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권리옹호관, 아동참여위원회 임원 등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아동 권리 보호와 참여를 이끌어갈 위원회 및 참여기구 위촉식을 시작으로 연구용역 최종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최종보고에서는 아동친화도 6대 영

역 조사를 바탕으로 한 종합 분석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영양 지표조사·영역·대상별 분석결과, 지역사회 아동 요구 확인조사·분석, 아동 요구 기반 조성 목표·세부목표 도출, 지역특성·아동인구·자원현황 등을 반영한 아동환경 분석과 시사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 아동의 다양한 요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했다.

군은 그동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표준조사 사전검사 신청과 군민 참여 원탁토론회 개최 등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는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4개년 전략을 수립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완도, 청년 블루푸드테크 지원사업 추진

참가자 모집...창업자·스타트업·기업 등 16곳 지원

완도군은 지역의 해양 수산 자원을 고부가가치로 전환하고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2026년도 청년 블루푸드테크 패키지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추진되는 연속 사업으로 해조류 등 해양 수산 자원에 바이오,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을 접목해 블루푸드테크 시장을 선점하고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 지원 규모는 총 4억860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유망 기업 등 16개 사 내외로, 선정된 기업은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창업 아이템 개발·창업 교육, 제품 개발·고급화, 기술 컨설팅·인증, 홍보·마케팅, 투자 IR·투자 포럼 등으로 창업부터 사업화·투자 유치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캠프와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경진 대회를 통해 우수 창업팀에는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에서 맡아 추진할 계획이다.

5월 7일까지 완도를 농공단지에 위치한 해양바이오본부로 방문·우편 신청을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바이오진흥원과 완도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한 블루푸드테크 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며 "유망 청년 창업기업들이 완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강진영화관, '5월 영화 보는 날' 운영

공휴일·첫째주 토요일...군민 관람료 50% 할인

강진군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강진영화관 '영화 보는 날' 행사를 운영한다.

'영화 보는 날'은 강진군이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연중 추진하는 행사로, 공휴일과 매월 첫째주 토요일마다 강진군민에게 영화 관람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군은 이번 행사가 온 가족이 함께 영화를 즐기며 일상 속 문화생활을 누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월 행사는 총 7일간 진행된다. 노동절인 1일, 어린이날 연휴가 포함된 2일부터 5일, 부처님 오신 날 연휴인 24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된다.

행사 당일 강진군민은 신분증 등 주소 확인이 가능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진영화관은 개관 1년 동안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군민의 대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양한 영화 상영과 할인 행사로 군민들의 호응을 얻은 결과, 강진영화관은 4월 기준 누적 관람객이 강진군 인구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5월 행사를 통해 강진영화관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생활 밀착형 문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군민들이 가족과 함께 부담 없이 영화를 즐기며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 가까이에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나주 '모아나주' 스탬프 투어 운영

체류형 관광 유도...기록형 관광·재방문 유도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여권 형태의 스탬프 북에 여행 기록을 남기는 '모아나주' 스탬프 투어를 24일부터 본격 운영하며 관광객 체류와 재방문을 유도하는 새로운 관광 모델을 선보인다.

이번 스탬프 투어는 기존 GPS 기반 모바일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여권 형태의 스탬프 북에 관광지 방문 기록을 직접 남기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자는 나주읍성권, 영산강권, 남평권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스탬프를 수집하며 여행의 과정을 기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나주 관광자원을 보다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다.

'모아나주' 스탬프 북은 여권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작돼 여행자의 정보와 방문 기록을 함께 남길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개인별 여행 기록물로서 소장 가치도 높였다.

시는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시 및 특



별 코스 미션을 완료한 관광객에게 나주 물 쿠폰 또는 나주사랑상품권(최대 3만원)을 제공하고 SNS 인증 이벤트를 통해 추가 기념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 방문 중심의 관광을 기록과 수집 기반의 체험형 관광으로 전환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아나주' 스탬프 북은 나주역 관광 안내소와 천년역사관 관광안내소에서 배부하며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누리집과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정임 나주시 관광문화복지국장은 "스탬프를 통해 남긴 여행 기록은 나주에서의 추억을 오래 간직하게 하는 요소다"며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자신만의 여행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강진영화관 2026년도도 강진군민
매월 첫째주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 명절에 **50%** 영화 할인

5월 영화 보는 날 가정의 달 1~5일, 24~25일

주소: 전남 완도군 완도읍 150-100(완도동) 3층 | 문의: 061-432-7718